

20세기 초 야마나가 상회(山中商會)에서 미국에 판매한 한국 회화 연구

권 형 인*

목 차

- I. 머리말
- II. 야마나가 상회의 한국 미술품 입수 경위
- III. 야마나가 상회에서 판매한 한국 회화의 유형과 성격
- I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야마나가 상회(山中商會)의 경매 카탈로그를 분석하여, 야마나가 상회를 통해 미국에 소개된 한국 회화의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야마나가 상회는 20세기 초 구미(歐美)에 수 만점의 아시아 문화재를 유통한 일본의 상회이다. 야마나가 상회가 미국에 판매한 품목으로 한국 미술품도 꾸준히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시 야마나가 상회를 통해 판매된 한국 미술품에 주목하였다. 특히 회화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야마나가 상회가 어떤 한국 회화작품을 판매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규명해 보았다. 이에 앞서 야마나가 상회의 한국 미술품 입수 경위를 살폈다. 야마나가 상회는 국내의 경매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조선의 골동 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재조일본인 골동품상과 민족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구매 커넥션을 형성하여 다수의 한국 미술품을 입수 및 반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야마나가 상회가 판매한 한국 회화작품의 화목으로는 불화가 가장 많고 화조·영모, 인물·초상 순이었으며, 주로 크고 화려한

* 權亨仁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hyungin9112@naver.com

투고일: 2024. 4. 30. 심사완료일: 2024. 6. 12. 게재확정일: 2023. 6. 24.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393>

채색화였다. 이는 한국 회화작품이 예술품으로서 실재를 장식하는 용도로 구매되었기 때문에 짐작된다. 한국 회화작품은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며 본래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공간과 문화권을 떠나 새로운 문화적 맥락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핵심어 | 근대, 미국, 미술시장, 경매, 한국 회화, 야마나카 상회

I. 머리말

오사카에서 고미술상을 운영하던 야마나카 사다지로(山中定次郎, 1866~1936)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것은 1894년이였다.¹⁾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 1838~1925),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 Fenollosa, 1853~1908), 윌리엄 비글로우(William S. Bigelow, 1850~1926)와 같은 일본 미술 연구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던 야마나카 사다지로는, 일본 미술 연구자들의 지원으로 이듬해 뉴욕에 야마나카 상회(山中商會, Yamanaka & Co.)를 설립할 수 있었다. 이후 야마나카 상회는 1899년 보스턴, 1901년 베이징, 1905년 파리, 1910년 런던 등에 지점을 내며 빠르게 성장했고, 찰스 랭 프리어(Charles Lang Freer, 1854~1919), 존 록펠러(John Davison Rockefeller, 1839~1937)와 같은 개인 컬렉터뿐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등 구미의 여러 미술관·박물관을 주요 고객으로 두며 공신력 있는 미술상점으로 입지를 굳혔다. 야마나카 상회가 진주만 공습 이후 적국자산관리국[Alien Property Custodian]에

1) 야마나카 사다지로는 오사카에 고미술상을 운영했던 아다치(安達) 가의 인물로, 원래는 아다치 사다지로(安達定次郎)였으나, 1889년 오사카에서 또 다른 고미술상을 운영했던 야마나카 요시베(山中吉兵衛) 장녀인 테이(貞)와 결혼하면서 성을 바꾸고 야마나카 상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山中定次郎傳』, 故山中定次郎翁編纂會, 1939, 1~6쪽.

의해 자산이 몰수되기 전까지 48년 동안 미국에서만 수만 점의 아시아 유물을 유통했다는 점은 구미 최대 동아시아 미술상점으로서 서양의 동아시아 미술시장을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야마나카 상회의 중요성은 국내외의 여러 분야의 학계에서 이미 인정되어, 그 개요와 역사, 거래 양상 등이 고찰되었다.²⁾ 특히 국내에서는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문화재를 밝히는 연구가 시도된 바 있고, 한국 문화재의 국외 소장 역사를 연구한 논문에 언급되기도 했다.³⁾

-
- 2) 해외에서는 야마나카 상회에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간략하게나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Brady, Colin James, “Yamanaka and Company: transforming the East Asian art market”, University of Edinburgh, 2020; Constance J. S. Chen, “Merchants of Asianness: Japanese Art Dealer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American Studies* 44(1), 2010, pp. 19~46; Yuriko Kuchiki, “The Enemy Trader: The United States and the End of the Yamanaka”, *Impressions* 35, 2013, pp. 32~53; Yuki Okamura, *Japanese Art Dealer: his New York city period, 1893-1936*, New York: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2003; Yumiko Yamamori, “Japanese Arts in America, 1895-1920, and the A. A. Vantine and Yamanaka Companies”, *Studies in the Decorative Arts* 15(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96~126; 山本真紗子, 「美術商山中商会 - 海外進出以前の活動をめぐって」, 『Core Ethics』 4, 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 2008, 371~382쪽; 朽木ゆり子, 『ハウス・オブ・ヤマナカ 東洋の至宝を欧米に売った美術商』, 新潮社, 2011.
- 3)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를 밝힌 연구로는 정규홍, 『우리문화재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주홍규, 「야마나카 상회와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한국학논총』 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403~434쪽 등이 확인되며, 해외박물관의 한국미술 컬렉션과 관련하여 야마나카 상회를 언급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김수진, 「제국을 향한 염원: 호놀룰루 아카데미 미술관 소장 <海鶴蟠桃> 병풍」, 『美術史論壇』 28, 한국미술연구소, 2009, 61~88쪽; 김윤정, 「근대 미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 3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6, 291~320쪽; _____,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석당논총』 6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 387~429쪽; 김지하, 「보스턴미술관의 한국미술 컬렉션 연구 (1892~1950)」, 『동양미술사학』 9, 동양미술사학회, 2019, 231~255쪽;

그러나 야마나카 상회가 유통했던 수많은 한국 문화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필자는 야마나카 상회가 판매했던 한국 미술품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20세기 초, 한국미술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거래의 경향성에 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논고에서는 필자가 계속해서 진행할 야마나카 상회 관련 연구의 첫 시작으로, 야마나카 상회가 미국에서 판매한 한국 회화작품에 주목할 것이다.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판매된 회화작품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규명할 것이다. 회화는 도자나 석물 등에 비해 확인되는 현전 작품 수가 적어 연구가 가장 미진한 분야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발행된 야마나카 상회 관련 경매 카탈로그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⁴⁾ 경매 카탈로그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 회화에 대한 취향 및 인식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에 앞서 야마나카 상회가 어떻게 한국 미술품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고 행보를 밝힘으로써 야마나카 상회의 활동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서운정, 「구미 소장 조선 후기 궁중 회화」, 『미술사와 문화유산』 7,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8, 145~172쪽; 정수형,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미술자료』 84, 국립중앙박물관, 2013, 102~127쪽; 하에이미, 「근대 미국의 한국도자 수집경향의 지역적 차이와 그 의의」, 『미술사학』 4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5~240쪽 등이 있다.

4) 야마나카 상회는 경매를 위한 전람회(展觀)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앞서 미리 확보한 품목의 정보를 실은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사전에 발송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홍규, 위의 논문, 409쪽.

Ⅱ. 야마나카 상회의 한국 미술품 입수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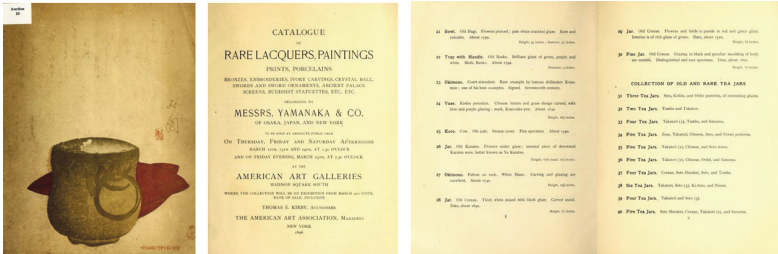
야마나카 상회는 뉴욕에 지점을 개점한 1895년, 미국 대중들을 상대로 경매를 위한 전시회[展觀]를 개최했다. 뉴욕 18번가에 위치한 클로이스터에서 금·토일 진행된 이 전시에는 일본의 그림과 판화 40여 점이 소개되었으며, 독특하고 참신하다는 호평을 받았다.⁵⁾ 이를 시작으로 야마나카 상회는 미국에서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카탈로그를 출판했으며, 일본 미술 관련 강의를 후원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⁶⁾ 야마나카 상회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 한국, 티베트의 미술품까지 취급하며, 미국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동아시아 취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야마나카 상회의 1896년 경매 카탈로그, *Catalogue of rare lacquers, paintings, prints, porcelains*(……)에는 한국 국적[Old corean]으로 기록된 도자 7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한국 미술품의 존재가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미국에 소개되었음을 보여준다(도 1).⁷⁾ 이후 미국 정부에 몰수된 소장품들이 다시 출품된 마지막 경매를 포함하여, 야마나카 상회 관련 경매에는 중국과 일본 미술품에 비해 그 빈도와 양은 적지만 한국 미술품 또한 꾸준히 출품되었다.

5) “Japanese Paintings and Prints”, *New York Times*, March 17, 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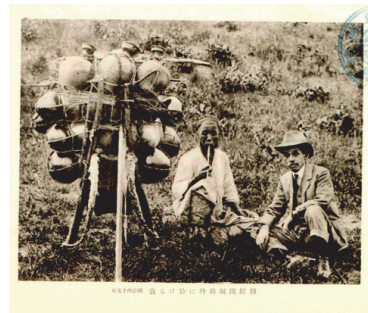
6) “JAPANESE CURIOS GALORE.: Yamanaka Surpasses Himself at the New Show”, *New York Times*, January 1, 1905.

7) 7건의 도자로는 다호[Tea Jars]로 명시되어 있는 2점을 포함하여 5점의 호[Jar]와 2점의 다완[Tea Bowl]이 확인된다. 다완에는 판사다완(判事茶碗)이 포함되어 있다. 언급했듯이 국적은 ‘Corean’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유물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성격을 살피기 어렵다. *Catalogue of rare lacquers, paintings, prints, porcelains, bronzes, embroideries, ivory carvings, crystal ball, swords and sword ornaments, ancient palace screens, buddhist statuettes, etc.*,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896, p. 7, p. 9.



도 1. *Catalogue of rare lacquers, paintings, prints, porcelains*(……)(1896)

그렇다면 야마나카 상회는 한국의 미술품을 언제부터, 어떻게 수집하고 있었을까. 기존 연구를 통해 1936년 경성미술구락부의 경매에서 간송 전형필과 <청화백자양각진사철채난국초충문병>을 놓고 경쟁한 일화가 밝혀져, 1930년대에 국내 경매에 참여하여 한국 미술품을 입수하고 있을 수 있었다.⁸⁾ 경매는 야마나카 상회가 한국 미술품을 입수하는 데 있어 쉽고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음은 틀림없다.⁹⁾ 그러나 야마나카 상회는 경매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야마



도 2. 야마나카 사다지로의 한국 방문 모습, 출처: 『山中定次郎傳』(故山中定次郎翁編纂會, 1939)

8) 최완수, 「간송이 문화재를 설립하던 이야기」, 『濶松文華』 5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6, 66-69쪽; 주홍규, 앞의 논문, 403쪽.
9) 야마나카 상회는 경성미술구락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매사와도 긴밀한 관련이 확인되는데, 도쿄 야마나카 상회는 동경미술구락부(東京美術俱樂部)의 주주 회원이었으며, 야마나카 사다지로와 대판미술구락부(大阪美術俱樂部) 취체역의 코지마 가스케(兒島嘉助)와의 친분이 확인되기도 한다. 東京美術倶楽部百年史編纂委員會, 『美術商の百年: 東京美術俱樂部百年史』, 東京: 東京美術倶楽部, 2006; 장해림, 「한국 근대 미술상(美術商)과 경매시장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가 사다지로로는 국내에서 경매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1900년 초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미술품을 수집하고 있었다(도 2). 필자가 확인한 야마나카 사다지로의 가장 이른 한국 방문은 1901년이다. 1903년 경매 카탈로그인 *Catalogue of magnificent collection of antique carvings and things Buddhistic from temples and palaces of Japan and China*에서는 1901년 가을, 야마나카 사다지로가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며 많은 미술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¹⁰⁾ 비록 이 경매 카탈로그에 수록된 출품 작품 대부분이 중국 것으로, 당시 반출된 한국 미술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야마나카 사다지로가 한국 미술품 수집의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른 기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¹¹⁾ 이후 야마나카 상회는 30년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미술품을 수집 및 반출해 나갔다.

경매 외에 야마나카 상회의 한국 미술품 입수 방법으로는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골동상과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야마나카 상회가 거래한 골동상으로는 먼저 이케우치 토라키치(池内虎吉)가 확인된다. 1930년 9월 19일 경성미술구락부에서 이케우치 토라키치의 소장품을 판매하는 경매가 열렸는데, 이를 홍보하는 신문 기사에는 야마나카 상회에 납품한 골동품상임이 선전되었다.¹²⁾ 이케우치 토라키치는 1912년부터 이왕가박물관과도 거래했

2023, 51~52쪽 참조.

10) *Catalogue of magnificent collection of antique carvings and things Buddhistic from temples and palaces of Japan and China*, New York: Yamanaka & Company; Fifth Avenue Galleries, 1903, p. 91.

11) *Catalogue of magnificent collection of antique carvings and things Buddhistic from temples and palaces of Japan and China* 경매 카탈로그에서 한국 국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은 로트 번호(Lot number) 254번, 255번 2점이다. 모두 목제 인물상으로 작품 설명에 ‘superb carving of a Korean riding on a tiger under a pine tree’, ‘a Korean lady playing a harp’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국적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bid., p. 71.

던 골동품상으로, 주로 개성 부근에서 도굴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기, 묘지명, 동경 등 부장품과 전국에서 수집한 불상, 나전칠기 등을 판매했다. 그가 판매했던 서화 작품으로는 진위가 의심스러운 것도 있어 조선 회화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인상의 <노송도>, 이명기·김홍도의 <서직수 초상> 등의 판매자로서 주목된다.¹³⁾

야마나카 상회는 도미타 상회(富田商會)의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 1858~1930) 컬렉션을 양도받기도 했다. 도미타 기사쿠는 평안도 진남포(鎭南浦)를 거점으로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금융업, 제조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한 사업가이다. 그는 조선 미술과 관련한 사업 또한 일찍부터 운영하였는데, 삼화고려소, 통영칠공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를 설립하는 등 공예품 제작에 참여하며 국내 공예 발전에 관심을 쏟았다.¹⁴⁾ 1922년에는 남대문동에 위치한 패밀리[巴密] 호텔에서 조선미술공예품 진열관을 개관하여 고대부터 당대에 이르는 조선의 미술품·민예품 등을 망라하여 수집·전시하기도 했다.¹⁵⁾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도미타 기사쿠는 1926년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소장품을 대거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야마나카 상회가 도미타 기사쿠의 1,000여 점의 유물을 사들이게 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당시 야마나카 상회가 도미타 기사쿠에게 입수하여 재판매한 작품으로 신윤복의 《혜원전신첩(惠園傳神帖)》, 호놀룰루 아카데

12) 「池内骨董店の競賣，廿一日美術俱樂部で」, 『京城日報』, 1930. 9. 19.

13)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 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 혜안, 2014, 111쪽.

14) 도미타 기사쿠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서와 논문 참고. 富田儀作, 우정미 역, 『식민지 조선의 이주일본인과 지역사회: 진남포의 도미타 기사쿠』, 국학자료원, 2013; 엄승희, 「근대기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가 구현한 청자재현의 메커니즘과 그 식민성 연구」, 『한국학연구』 7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85~121쪽; 이가연, 「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자본축적과 조선인식」,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391~428쪽.

15) 「美術品陳列，원 과밀호텔에 다수관람을 환영」, 『毎日申報』, 1922. 11. 27.; 「朝鮮古代美術品，진열소는 남문동 과밀호텔 안에다」, 『毎日申報』, 1922. 11. 29.

미 미술관 소장의 <해학반도(海鶴蟠桃)> 병풍이 밝혀진 바 있다. 먼저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혜원전신첩》은 전형필이 조선미술공예품 진열관에서 작품을 접하고 수소문한 끝에 직접 오사카에 있는 야마나카 상회에 방문하여 2만 5천 원에 구매했다고 전해진다.¹⁶⁾ 작품의 도상, 장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이라고 여겨지는 <해학반도> 병풍은 1890년대부터 아시아 미술품을 수집했던 애나 라이스 쿡(Anna Rice Cooke, 1854~1934)이 다나카(K. Tanaka)의 중개로 1927년 6월 22일 야마나카 상회의 뉴욕지사에서 구매했다고 한다.¹⁷⁾ 이를 통해 야마나카 상회가 도미타 기사쿠 컬렉션의 일부는 일본에서, 또 일부는 해외 지점에서 판매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미국으로 건너간 도미타 기사쿠의 일부 컬렉션은 아메리칸 아트 어소시에이션(American Art Association)의 주최로 1928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의 경매를 통해 대대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¹⁸⁾ 이 경매의 카탈로그에는 총 670건의 미술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326건이 한국 미술품이다.¹⁹⁾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도자기를 포함하여 공예품이 주를 이루지만 회화작품도 40건이 확인된다(표 1).

16) 이충렬, 『간송 전형필: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 김영사, 2010, 236~255쪽.

17) 김수진, 앞의 논문, 82~83쪽.

18) 이 경매는 3일간 \$59,852의 수익을 올렸다. "\$59,852 FOR ORIENTAL ART.", *New York Times*, February 26, 1928.

19) 로트 번호는 661번까지 부여되었지만, 각 유물에 중복번호가 부여된 것이 있어 총 670건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 카탈로그의 서문에는 도미타 기사쿠와 그의 컬렉션에 관한 설명이 적혀있다. 관련해서는 *Oriental art: hard stone carvings, celadons, fabrics, bronzes, wood and stone sculptures, lacquer, paintings on silk*, New York: Yamanaka & Company, 1928, pp. 9~10 참조.

표 1. Oriental art, hard stone carvings, celadons, fabrics, bronzes, wood and stone sculptures, lacquer, paintings on silk에 수록된 한국 미술품 구성²⁰⁾

대분류	소분류	건수
회화	-	40건
공예	금속공예	37건
	도자공예	100건
	목공예	54건
	칠공예	74건
	자수공예	1건
	옥석공예	2건
조각	-	18건

이러한 야마나카 상회의 한국 미술품 입수 경위는 야마나카 상회가 20세기 초 조선에서 경매와 골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재조일본인 골동품상과 민족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구매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야마나카 상회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8~1935),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893~1983)와 같은 당대 한국의 문화 예술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일본 학자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²¹⁾ 다시 말해

20) 표지의 제목은 Chinese & Korean art objects of age and Excellence from the private museum collection of MR. GISAKU TOMITA Seoul, Korea로 확인된다.

21) 야마나카 상회 관련 자료에서 한국의 문화재와 관련이 깊은 세키노 타다시,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1881~1938), 우메하라 스에지 등이 남긴 글이 확인되어 이들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주홍규, 앞의 논문, 405~407쪽. 한편, 이밖에도 야마나카 상회가 총독부박물관에 한 대(漢代) 금동작식, <金銅水昌入漆器盒飾>을 기증하기도 했음이 확인된다. <金銅水昌入漆器盒飾>은 원래 1928년 야마나카 상회가 중국고미술품전람회에 출품했던 것이다. 세키노 타다시는 본 전람회의 카탈

일본인들이 고미술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20세기 초 조선에서 일본 상회인 야마나카 상회는 다양한 재조일본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다수의 한국 미술품을 매입하고 반출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유출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야마나카 사다지로가 1930년 보석류를 국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밀수로 걸려 검찰로 송치되어 취조를 받은 사건은 야마나카 상회가 국내에서 무자비하게 한국 미술품을 구득(求得)하여 반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²²⁾

한편, 야마나카 상회가 평양공예조합에서 제작 판매했던 낙랑칠기를 취급하였음도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937년 『동아일보』에는 평양박물관이 야마나카 상회를 통하여 평양공예조합에서 제작 판매한 낙랑칠기의 판로를 세계로 확장하고자 하였다는 기사가 실린 바 있다.²³⁾ 이는 당시 국내에서도 일본과 구미에 지점을 두고 있는 야마나카 상회의 명성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으며,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한국 미술품의 세계화, 상품화를 꾀하고자 했던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야마나카 상회라는 일본 상회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적으로 얽혀있었고, 이 이해관계 속에서 야마나카 상회는 한국 미술품 입수를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야마나카 상회는 당대 서양인들의 동양 미술품 수집의 열기를 직접 체감했기에 상품의

로그를 보고 총독부박물관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에게 연락하여 구매를 추천하였다. 이후 총독부박물관은 야마나카 상회에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접수한 야마나카 상회가 판매가 아닌 기증 의사를 피력하였다. 관련해서는 이태희,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중국문화재」, 『미술자료』 87, 국립중앙박물관, 2015, 172쪽 참고.

22) 「山中商會の密輸事件地方法院に廻附」, 『京城日報』, 1930. 7. 17.; 「보석밀수범(寶石密輸犯) 신의주검사국에」, 『朝鮮日報』, 1931. 2. 1.

23) 「平壤의 樂浪漆器 世界的販路를 擴張」, 『東亞日報』, 1937. 7. 19. 1909년부터 낙랑고 분이 발굴되면서 칠기가 출토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평양공예조합에서는 이 낙랑칠기를 모방하거나 낙랑문양을 활용한 근대 칠기를 생산하였다. 낙랑칠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영찬, 「‘낙랑칠기’ 연구와 식민주의」, 『백제문화』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89~107쪽 참고.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국내의 수집가나 골동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거래를 실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야마나카 상회에서 판매한 한국 회화의 유형과 성격

야마나카 상회가 미국에서 한국 회화작품을 출품한 한 가장 이른 시기의 경매는 1916년 2월 7일, 8일 양일간 뉴욕의 아메리칸 아트 갤러리(American Art Galleries)에서 열린 동양 미술 경매로 확인된다. 경매의 카탈로그에는 9점의 한국 회화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서문에는 이미 티베트 라마교 그림과 한국의 불화가 일부 박물관과 컬렉터들에게 구매되었지만,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장에 나온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소개되었다.²⁴⁾ 이후 같은 해 12월, 보스턴의 야마나카 갤러리(The Yamanaka Gallery)에서 다시 한국의 회화가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경매 카탈로그의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Korean Painting’이라는 이름으로 불화 사진 한 점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도 3).²⁵⁾ 이 작품은 <시왕도 제9 도시대왕>으로, 덴만 왈도 로스(Denman Waldo Ross, 1853~1935)가 1917년 기증하여 현재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도 4).

24) *Illustrated catalogue of a remarkable collection of ancient Oriental imperial treasures of rare artistic distinction*,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916, p. 142.

25)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hibition of oriental art treasures*, Boston: Yamanaka & Company, 1916, p. 106.



도 3. 〈Korean painting〉
(출처: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hibition of oriental art treasures*, Boston: Yamanaka & Company, 1916.



도 4. 〈Ten Kings of Hell; The Ninth King Dosi〉, colors on silk, 153×111.1cm, Denman Waldo Ross Collecti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뛰어난 식견과 심미안의 소유자로 평가되는 로스는 1895년부터 1934년까지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운영이사회에서 일하며 평생 수집한 그의 소장품 1만 2천여 점을 모두 보스턴미술관에 기증했던 인물이다. 그가 수집한 한국 미술품의 출처에 대해서는 미술품 구입을 위해 자주 유럽 및 아시아를 여행한 사실로 미루어 현지 미술상이나 경매를 통해 소장하게 된 것으로 짐작됐다.²⁶⁾ 위의 카탈로그는 로스가 미국에서 야마나

26) 전수형, 앞의 논문, 112~113쪽.

카 상회를 통해 한국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함께 기증된 <시왕도 제7 태산대왕> 역시 야마나카 상회에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명한 컬렉터들이 미국에서 구매했던 여러 한국 회화작품 또한 야마나카 상회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후 한국 회화작품이 수록된 야마나카 상회 관련 카탈로그는 미국에서 발행된 것만 10권이 확인되며 유럽, 일본에서 발행된 카탈로그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표 2).²⁷⁾

표 2. 미국에서 발행된 한국 회화작품이 수록된 야마나카 상회의
경매 카탈로그²⁸⁾

연 번	발행 년도	간행물명	경매장소
1	1916	Illustrated catalogue of a remarkable collection of ancient Oriental imperial treasures of rare artistic distinction	New York
2	1916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hibition of oriental art treasures	Boston
3	1918	Illustrated Catalogue of Chinese Art Treasures and Antiquities from the Private Collection of Mr. Edward Warren	New York
4	1921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ceedingly Important Collection of Artistic Oriental Objects and Decorative Art	New York
5	1928	Oriental art, hard stone carvings, celadons, fabrics, bronzes, wood and stone sculptures, lacquer, paintings on silk	New York

27) 자수 병풍과 회화 관련 전적이 포함된 경매 카탈로그를 포함하면 12권이 확인된다.

28) 필자는 미국에서 발행된 야마나카 상회 관련 도록 79권을 살폈고, 그중 20권의 도록에서 한국 미술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1933	Art objects and furniture from Japan, China and Korea recently procured in the Orient	Boston
7	1934	Exhibition of Chinese Art at the Fine Arts Exposition	New York
8	1943	Collection of Chinese and other Far Eastern art	New York
9	1944	Oriental art; the entire stock of the New York store with additions from the Chicago store Pt.2	New York
10	1944	Oriental art; the entire stock of the New York store with additions from the Chicago store Pt.3	New York

각 년도 별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 회화작품은 220여 건이다. 적국자산관리국의 명령으로 뉴욕과 시카고 매장에 남아있던 작품이 파크 베넷 갤러리(Parke-Bernet Galleries)의 관리하에 청산되었던 1944년 경매의 카탈로그에 가장 많은 수의 한국 회화작품이 수록되었고, 앞서 언급한 도미타 기사쿠 컬렉션의 경매 카탈로그가 그다음이다. 1944년에 발행된 두 권의 카탈로그에는 국적과 화목이 다른 여러 점의 작품이 하나의 로트 번호(Lot number)로 출품되어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로트 번호를 기준으로 1건으로 헤아렸기 때문에 실제 판매된 한국 회화작품의 점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를 상회한다.

작품 설명을 바탕으로 화목별로 정리해 보면 진영 3건을 포함하는 불화·진영이 124건(56%), 화조·영모 42건(19%), 인물·초상 12건(5%)으로 불화·진영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표 3). 경매 카탈로그에 이미지가 수록된 불화로는 앞서 살펴본 <시왕도 제9 도시대왕>과 허미티지 박물관(The Hermitage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가 국내로 반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영산회상도>, 그리고 <나한도> 한 점이다(도 5, 6). 13세기의 한국 그림으로 소개된 <나한도>는 나무 아래에서 염주를 쥔 채 앉아 있는 나한이 화면 중앙에 크게 배치된 단 폭의 그림이다.

표 3. 아마나가 상회의 경매 카탈로그에 수록된 한국 회화작품 화목별 구성

발행 년도	총합	산수	화조 영모	인물 초상	불화 진영	풍속 기타	서예 탁본	불명
1916	10			2	8			
1918	1		1					
1921	18		7	2	9			
1928	40	4	13	7	16			
1933	9		3	1	5			
1934	1				1			
1943	2				2			
소계	81	4	24	12	41			
1944	145		18		83		2	42
총계	226	4	42	12	124		2	42



도 5. <영산회상도>, 조선, 견본채색,
318.5×315cm, 국립중앙박물관
(증 9292)



도 6. <Korean Pintng>
(출처: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ceedingly important collection
of artistic Oriental objects and
decorative art*,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921)

이러한 불화·진영 선호 경향은 20세기 초 국내 박물관의 수집 경향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먼저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소장품을 수집하였던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 중 서화의 비율은 산수화가 920점(25%)으로 최대비율을 차지하고, 화조영모화 667점(18%), 풍속화 427점(11%), 서예 탁본은 375점(10%), 인물·초상 294건(8%) 순서로 안배되었다.²⁹⁾ 그러나 불화는 61점에 불과하다. 1915년부터 1941년까지 주로 구매를 통해서 서화 컬렉션을 확충했던 총독부박물관의 불화 비율은 더욱 낮다. 서적을 포함하여 총독부박물관의 회화 컬렉션의 비중은 전체의 약 12%(4,364점)인데, 대다수가 탁본으로 채워져 있고 회화는 466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불화는 4점만이 확인된다. 이는 국내와 미국에서의 불화에 대한 선호가 현저하게 달랐음을 보여준다. 1902년 이미 샤를 질로(Charles Firmin Gillot, 1853~1903)에게 고려 시대 불화를 판매했던 야마나카 상회는 당시 구미에서의 불화에 대한 수요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국내에서는 구미와는 대조적으로 불화가 수집되지 않았기에 야마나카 상회가 더욱 수월하게 다수의 불화를 입수하여 해외로 반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³⁰⁾

불화 외의 다른 화목의 경우 필자가 이미지를 확인한 회화작품은 앞서 언급한 호놀룰루 아카데미 미술관 소장 <해학반도> 병풍을 포함하여 6점이다. 카탈로그에서 새롭게 확인한 이미지는 무신도 계열의 인물화 3점으로, 모두 인물·초상 화목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먼저 1916년 카탈로그 *Illustrated catalogue of a remarkable collection of ancient Oriental imperial treasures of rare artistic distinction*에는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편년 되어 있는 <산신도> 한 점이 수록되어 있다(도 7). 눈썹과 수염이 하얗게 센 산신이 꽃을 든 채 호랑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갈색 바탕에 붉은색,

29) 박계리, 앞의 책, 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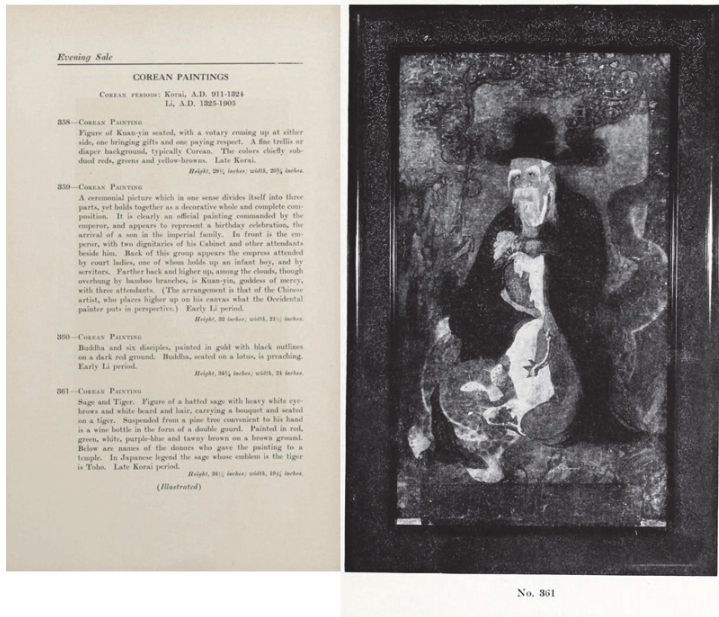
30) J. Keith Wilson, Goryeo Buddhist Paintings and their Transmission to the United States: <https://publications.asia.si.edu/publications/goryeo/en/essay-wilson-goryeo-buddhist-paintings.php>(2023년 12월 6일 검색).

녹색, 흰색, 남색, 황갈색 등으로 채색되었으며, 그림에 하단에는 이 그림을 사찰에 기증한 후원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설명되었다.³¹⁾ 1921년 뉴욕 경매의 카탈로그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ceedingly Important Collection of Artistic Oriental Objects and Decorative Art*에서도 두 점의 이미지를 살필 수 있다. 로트 번호 425번, 427번의 작품으로, 각각 13세기의 황후와 황제 초상으로 적혀있지만 조선 시대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8). 두 작품은 중앙에 주 인물이 크게 그려져 있고 양옆으로 그들을 보필하는 인물들이 작게 그려진 도상이 상당히 유사하다. 작품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설명에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음이 서술된 것으로 보아 화려하게 채색된 채색화임을 알 수 있다.³²⁾ 두 점의 무신도가 수록된 위의 카탈로그 서문에는 한국 회화의 특징을 일본의 섬세함과 중국의 정제된 과는 구별되는 원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신도 계열의 인물화가 이에 부합하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³³⁾

31) *Illustrated catalogue of a remarkable collection of ancient Oriental imperial treasures of rare artistic distinction*,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916, p.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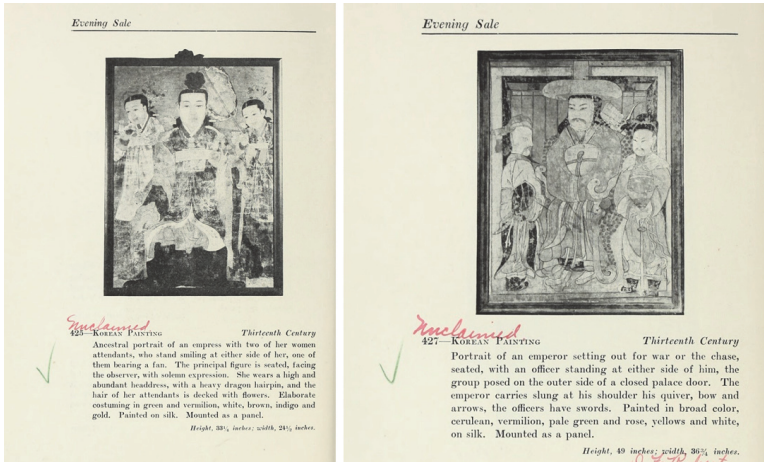
32)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ceedingly important collection of artistic Oriental objects and decorative art*,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921, pp. 125~127.

33) *Ibid.*, p. 5.



도 7. 〈Corean Painting〉

(출처: *Illustrated catalogue of a remarkable collection of ancient Oriental imperial treasures of rare artistic distinction*, New York: Yamanaka & company, 1916)



도 8. 〈Korean Painting〉

(출처: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ceedingly important collection of artistic Oriental objects and decorative art*,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921)

화조·영모 분야에서는 그림 설명이 자세히 묘사된 24건을 분석해 보았을 때, 16건이 화려한 채색화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 8건만이 수묵 혹은 수묵담채화로 노안도, 매화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색화 중 영모화로는 4건의 용도(龍圖)가 확인되는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919년 야마나카 상회에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는 <Dragons Playing with the Sacred Pearl>(19.103.4)를 참고해 볼 수 있겠다(도 9). 같은 해에 동일하게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입수된 <Golden Rooster and Hen>(19.103.2) 역시 진채(眞彩)의 채색화로 참고가 된다(도 10).

또한, 당시 거래된 한국 회화작품들이 비교적 대형의 그림들이 흥미롭다. 이미지를 살펴본 무신도 3점은 각각 세로 87.6cm, 가로 50.1cm, 세로 84.5cm, 가로 62.2cm, 세로 124.4cm 가로 93.3cm이며, 액자 형식으로 벽에 걸거나 세워두고 감상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현전하는 <Dragons

Playing with the Sacred Pearl>은 횡축형의 작품이지만 세로 46.4cm 가로 215.9cm이고, <Golden Rooster and Hen>는 족자형식으로 차이가 있지만, 장황까지 포함하여 세로 200.7cm, 가로 55.9cm의 크기로 역시 대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야마나카 상회의 경매 카탈로그에 수록된 한국 회화작품은 세로 기준 가장 작은 그림이 64.7cm이고, 2m가 넘는 작품도 무려 10건 이상 확인된다.³⁴⁾ 실제로 1921년 경매 카탈로그의 서문에는 야마나카 상회가 집안을 장식하기 위한 동양의 예술 작품들을 수집해 왔고, 특히 이번 경매에 출품되는 중국(China), 일본(Japan), 한국(Chosen (Korea))의 예술품들은 집이나 연구실의 내·외관을 위한 주목할만한 장식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⁵⁾ 요컨대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실내에 장식으로 활용될 법한 크고 화려한 한국 회화가 애호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형의 크기, 화려한 색채 사용은 가장 선호되었던 화목인 불화의 특징과도 일치하는 지점이다.

34) 2m가 넘는 작품으로는 1928년 도미타 기사쿠의 컬렉션을 판매한 경매 도록 *Oriental art, hard stone carvings, celadons, fabrics, bronzes, wood and stone sculptures, lacquer, paintings on silk*, New York: Yamanaka & Company, 1928 에 17건이 수록되어 있다.

35) op.cit., 1921, pp. 5~6.



도 9. 〈Dragons Playing with the Sacred Pearl〉, 16th century, ink and color on paper, 46.4×215.9×1.9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103.4)



도 10. 〈Golden Rooster and Hen〉, 19th century, ink and color on paper, 200.7×62.9cm,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19.103.2)



도 11. 야마나카 상회 시카고점 전시실 모습
(출처: 朽木ゆり子, 『ハウス・オブ・ヤマナカ 東洋の至宝
を欧米に売った美術商』, 新潮社, 2011)

야마나카 상회의 시카고점 전시실 사진 한 장은 당시 한국 회화의 활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도 11). 일반 서재처럼 꾸며진 전시실에는 동서양의 미술품이 가득한데, 책상 앞 벽면에 그림 한 점이 걸려있다. 사자 위에 앉아 있는 광배가 있는 인물을 모습을 볼 때 문수보살도로 추정되며 흑백사진이지만 화려한 채색화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앞서 살펴본 산신도를 연상케 한다. 이미 구미에서 동양의 미술품으로 실내를 장식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야마나카 상회가 미술품 판매 광고를 『아트 앤 데코레이션(Arts and Decoration)』 등의 인테리어 관련 잡지에 게재하였다는 점 또한 한국 회화 또한 장식화로써 구매되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³⁶⁾ 더욱이 야마나카 상회는 자신이 판매한 작품들이 미학적 중요성을 지녔음을

36) Yamamori Yumiko, op.cit., pp. 103~117.

홍보했다.³⁷⁾

정리하면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미국 대중들에게 판매된 한국 회화는 예술품으로 인식되었고 장식 그림으로서 향유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민족학 자료이자 연구의 대상으로 한국 회화를 수집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³⁸⁾ 당시 조선에서 인기리에 거래되었던 풍속화가 경매 카탈로그에는 단 한 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수묵으로 많이 제작되었던 산수화가 국내에서는 비중 있게 거래되었으나 야마나카 상회의 미국 지점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았던 것도 당시 한국 회화에 대한 미국 컬렉터의 인식 및 수요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야마나카 상회가 《혜원전신첩》을 미국으로 반출하지 않고 오사가 지점에서 두었던 것도, 한국 회화를 바라보는 각국의 인식과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20세기 초 동·서양을 오가며 한국의 미술품을 판매하였던 일본의 상회인 야마나카 상회를 주목하여, 야마나카 상회의 한국 미술품 입수 경위를 살피고 야마나카 상회가 판매한 한국 회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야마나카 상회가 판매한 한국 미술품 중 미국에서 판매한 한국 회화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한국 회화는 그동안 현전 작품 수와 관련

37) Constance J. S. Chen, op.cit., p. 29.

38) 19세기 말 민족학 자료로서 회화가 수집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서운정, 앞의 논문, 151~152쪽; 손영옥,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소장 버나도(Bernadou)·알렌(Allen)·주이(Jouy) 코리안 컬렉션에 대한 고찰」, 『민속학연구』 38, 국립민속박물관, 47~52쪽; 윤현진, 「개항기 서구인들의 미인도 수집과 그 의의」, 『한국민화』 13, 한국민화학회, 2020, 164~189쪽.

자료가 적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분야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 발간된 경매 카탈로그를 분석함으로써 야마나카 상회 주도하에 다수의 한국 회화작품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마나카 상회를 이끌었던 야마나카 사다지로는 늦어도 1901년부터 조선을 방문하여 한국 미술품을 수집해 나갔다. 야마나카 상회는 일제강점이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 속에서 조선의 문화 예술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수의 한국 미술품을 입수하고 반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경매 참여뿐 아니라, 당시 조선의 골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재조일본인 골동상과 민족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구매 커넥션이 관찰됐다. 한편, 내부에서는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한국 미술품을 세계에 알리고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처럼 야마나카 상회를 둘러싼 복합적인 이해관계는 야마나카 상회가 다양한 한국 미술품을 입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야마나카 상회에 입수된 한국 회화작품의 일부는 미국 경매에 출품되었다. 경매의 카탈로그에 수록된 야마나카 상회의 한국 회화작품은 220여 점이 확인되며, 화목별로 불화, 화조·영모, 인물·초상 순으로 비중이 컸음을 살폈다. 나한도와 무신도 3점은 이미지를 새롭게 확인했다. 무신도의 이미지가 비중 있게 수록된 이유로는 원시적이라고 생각되었던 한국 회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당시 유통된 한국 회화작품들은 비교적 크기가 크고 색채가 화려한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는 한국 회화가 예술품으로서 실내를 장식하는 용도로 구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민족학적 관점에서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에게 가장 인기리에 구매되었던 풍속화가 경매 카탈로그에서 단 한 점도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한국 회화가 장식화로써 구매되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 회화는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며 본래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공간과 문화권을 떠나 새로운 문화적 맥락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경매 카탈로그를 정리하여 야마나카 상회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 회화의 특징을 밝힌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일본 상회의 구체적인 한국 미술품 입수 및 반출 경위를 고찰하고, 20세기 초 미국인들의 한국 회화에 대한 욕구 및 선호를 살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카탈로그 목록에서 확인한 대부분의 한국 회화작품의 실체를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카탈로그 이외에 20세기 초 미국에서 한국 회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필 수 있는 다른 자료까지를 고찰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야마나카 상회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에서 판매한 한국 회화작품까지를 정리하여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日報』

NEW YORK TIMES

김수진, 「제국을 향한 염원: 호놀룰루 아카데미 미술관 소장 <海鶴蟠桃> 병풍」,
『美術史論壇』 28, 한국미술연구소, 2009, 61-88쪽.

김윤정, 「근대 미국에서 한국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
3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6, 291-320쪽.

_____,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석당논총』
6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 387-429쪽.

김지하, 「보스턴미술관의 한국미술 컬렉션 연구 (1892-1950)」, 『동양미술사학』
9, 동양미술사학회, 2019, 231-255쪽.

박계리, 『모더니티와 전통론 : 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 혜안,
2014.

서윤정, 「구미 소장 조선 후기 궁중 회화」, 『미술사와 문화유산』 7,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8, 145-172쪽.

엄승희, 「근대기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가 구현한 청자재현의 메커니즘과
그 식민성 연구」, 『한국학연구』7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85-121쪽.

이가연, 「진남포의 ‘식민자’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의 자본축적과 조선인식」,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391-428쪽.

이충렬, 『간송 전형필: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 문화재
수집 이야기』, 김영사, 2010.

정규홍, 『우리문화재반출사』, 학연문화사, 2012.

정수형, 「보스턴미술관 한국미술품 소장사」, 『미술자료』 84, 국립중앙박물관,

2013

주흥규, 「야마나카 상회와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한국학논총』 4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최완수, 「간송이 문화재를 설립하던 이야기」, 『澗松文華』 5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1996.

富田儀作 저·우정미 역, 『식민지 조선의 이주일본인과 지역사회 : 진남포의 도미타 기사쿠』, 국학자료원, 2013.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朽木ゆり子, 『ハウス・オブ・ヤマナカ 東洋の至宝を欧米に売った美術商』, 新潮社, 2011.

『山中定次郎傳』, 故山中定次郎翁編纂會, 1939.

Brady, Colin James, *Yamanaka and Company: transforming the East Asian art market*, 2020.

Constance J. S. Chen, “Merchants of Asianness: Japanese Art Dealer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American Studies* 44(1), 2010, pp. 19-46.

Yumiko Yamamori, “Japanese Arts in America, 1895-1920, and the A. A. Vantine and Yamanaka Companies”, *Studies in the Decorative Arts* 15(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96-126.

Catalogue of rare lacquers, paintings, prints, porcelains, bronzes, embroideries, ivory carvings, crystal ball, swords and sword ornaments, ancient palace screens, buddhist statuettes, etc.,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896.

Catalogue of magnificent collection of antique carvings and things Buddhistic from temples and palaces of Japan and China, New York: Yamanaka & Company; Fifth Avenue Galleries, 1903.

Illustrated catalogue of a remarkable collection of ancient Oriental imperial treasures of rare artistic distinction, New York: American Art Association, 1916.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hibition of oriental art treasures, Boston: Yamanaka & Company, 1916.

Illustrated catalogue of an exceedingly important collection of artistic Oriental objects and decorative art, New York: Yamanaka & Company; American Art Association, 1921.

Oriental art: hard stone carvings, celadons, fabrics, bronzes, wood and stone sculptures, lacquer, paintings on silk, New York: Yamanaka & Company, 1928.

J. Keith Wilson, *Goryeo Buddhist Paintings and their Transmission to the United States*,
<https://publications.asia.si.edu/publications/goryeo/en/essay-wilson-goryeo-buddhist-paintings.php>(2023년 12월 6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KOREAN PAINTING IN THE UNITED STATES
BY THE YAMANAKA & CO. IN THE EARLY 20TH CENTURY

KWON HYUNGIN (KWON, HYUNG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uction catalogs of Yamanaka & Co. to examin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aintings introduced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Yamanaka & Co. Yamanaka & Co. is a Japanese trading company that entered the United States in 1894 and established multiple branches across Europe and America, distributing tens of thousands of Asian cultural artifacts. From 1896 to 1944, Yamanaka & Company consistently included Korean artworks among the items it sold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Korean artworks that were sold through the Yamanaka & Co. at that time. In particular, by targeting only Korean painting works that have not been studi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current works, we investigated what kind of Korean painting works the Yamanaka & Co. sold and its characteristics. Prior to this, first this paper explores how Yamanaka & Co. acquired Korean art. The company not only participated in domestic auctions but also formed purchasing connections based on ethnic affinity with Japanese dealers in Joseon who dominated the antique trade and auction markets at the time. This enabled them to collect and export numerous Korean artworks. In thi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lso an effortt within Korea to promote Korean art to the world through the Yamanaka & Co. Korean paintings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Yamanaka & Co. were primarily Buddhist paintings, followed by bird-and-flower paintings and portraits. They were typically large and adorned with vibrant colors. Through this, It can be assumed that Korean paintings exported through Yamanaka & Co. were likely purchased for interior dec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20th century.

Key Words : Modern Period, America, Auction, Korean Painting, Yamanaka & co., Art Market

